

[인터뷰] 가르침에 대한 성찰

‘제2회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자
홍승수 교수의 ‘증여와 교환의 눈으로 본 교육’

홍승수

1967년 서울대학교 천문기상학과 졸업.

1975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천문학 박사 졸업.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실험천체물리연구소 연구원.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우주천문학연구소 연구원.

일본 우주항공과학연구소 초빙교수.

한국천문학회 회장.

현재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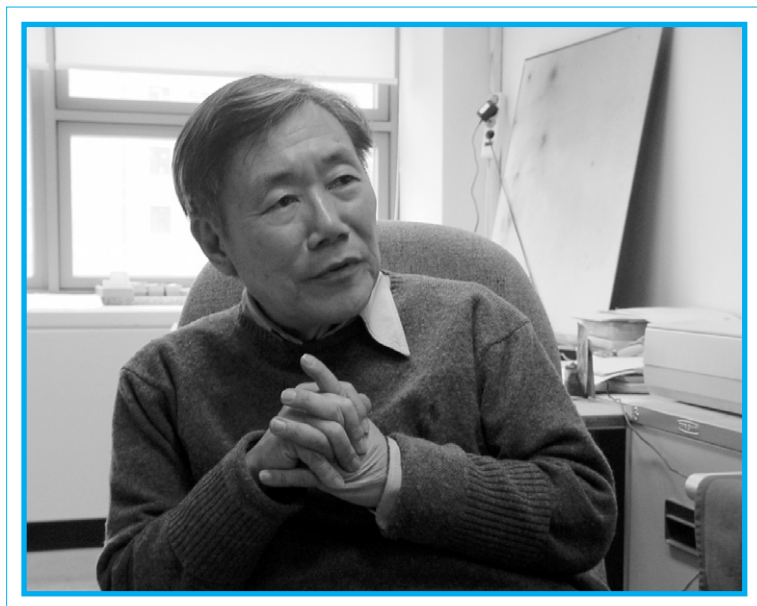
이번 호는 ‘제2회 서울대학교 교육상’ 대상을 수상한 물리·천문학부의 홍승수 교수의 기념 특별 강연: ‘증여와 교환의 눈으로 본 교육’을 요약, 정리하여 실는다.

교무처장님으로부터 지난달 어느 날 저의 수상에 관한 전화를 받고 얼떨떨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상과는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화기를 놓고 의자에 앉았는데 고(故) 유경로 교수님 말씀이 제 귓전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교수는 상과 멀리 살아야 돼!” 유 선생님께서 경계하시던 그 상을 제가 받게 되다니, 선생님의 분부를 어긴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신 두 분의 대학 은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고(故) 소남 유경로 선생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신 현정준 선생님이십니다. 오늘은 주로 유 선생님과 저의 만남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제 생각을 풀어갈까 합니다.

증여와 교환

유 선생님께서는 보상이나 결과를 의식하고 교육하시는 게 아닌 듯했습



니다. 나카자와 신이치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증여의 교육이었지 교환의 교육이 아니었던 말씀입니다. 교육은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우리는 증여와 교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교환의 만남은 즉각적인 반대급부가 있고 그 만남은 일회성으로 그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증여의 만남에서 즉각적 반대급부는 실례로 간주됩니다. 물론 어떤 형태로든 받은 자가 준 자에게 보상을 의식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증여의 관계에서는 보상이 증여자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 선생님이 1917년생이시고 저의 모친 역시 1917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유 선생님은 제게 부모와 대응되는 관계입니다. 한 세대를 격한 만남들이 갖는 공통된 특징은 증여의 관계이지 교환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점이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자식과 증여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식을 증여의 정으로 키웁니다. 결혼을 시켜 새 식구를 맞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새 식구를 매개로 한 갈등 구조가 성립되고, 이때 부모의 입에서 만의

하나 “너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하는 말이 나가면, 그 증여의 관계는 그 순간에 교환의 관계로 타락하고 거기서 단절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나이 차이가 적은 만남일수록 둘은 증여보다 교환의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이른 나이에 교수직을 시작하여 교수와 학생의 나이 차이가 단축되었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이 사실이 내포하는 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교육 외적 여건은 교수로 하여금 학생과 교환의 관계를 가지라고 몰아잡니다. 연구비라는 당근을 주고 그 대가를 제한된 시간에 내라고 채찍을 휘두릅니다. 연구비를 주는 측과 받는 연구자 교수의 관계는 철저하게 교환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자 교수는 다시 학생과 교환의 관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군자불기(君子不器)

학생이 연구의 도구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도구가 도구로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할 때 저는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이 도구로 보이기 시작하면 교수는 학생을 공자께서 경계하셨던 그릇 기(器)로 보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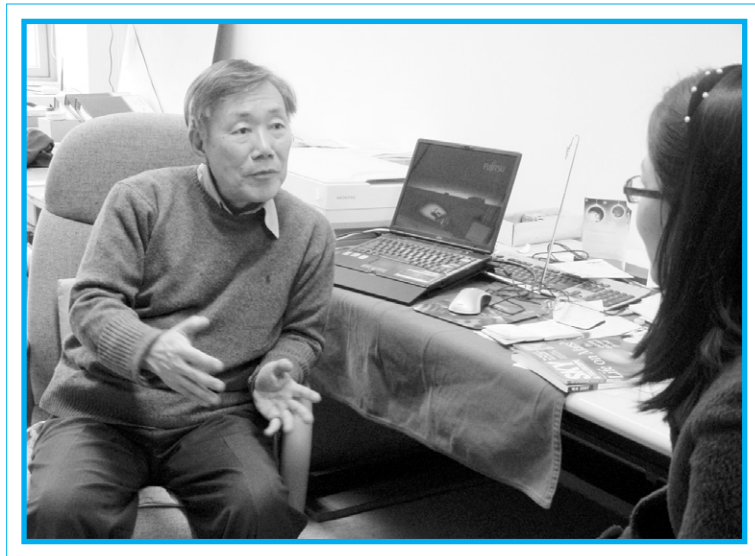
오늘날 기업은 대학에게 전문성을 갖춘 특정 목적의 그릇으로 학생을 키워 내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언론도 산업현장에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일인일기(一人一技)의 기능인을 양성하는 게 대학의 의무라고 우리 대학인들을 마구 다그칩니다. 학생들 역시 자신을 기능인으로 키워달라고 대학에 요구합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전수하는 교과목에 몰리고 취직시험에 유리한 주제의 교과목을 선택합니다. 오죽했으면 대학이 수강 인원의 제한을 뒤편에 하고 그리고 그 제한을 뚫기 위해 줄을 서서 수강 신청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신영복 교수는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에서 사회학도의 눈으로 이 문제를 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대학에게 전문성을 강조하지만 효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기업가는 전문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전문화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성공한 자본가들의 공통적 특성”이라고 그는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모순의 배경에는 일회성 소모품으로 인간을 보려는 기업의 속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관악을 나설 때 그대들은 소모품의 기능인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면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할 지적 토양을 이 관악에서 마련해가지고 나가고 싶습니까?

반성/증여와 교환의 갈등

저는 새내기들의 밝고 선한 눈빛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일지만 저와 매일 머리를 맞대고 연구 작업을 같이 해야 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주고 싶은 건 단 한 가지뿐입니다. 어떻게든 이



‘기술’, 이 ‘기능’을 빨리 가르쳐서 내가 관심을 갖고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저들이 즉각 풀어낼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지난 30여 년의 관악 생활을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열심히 가르쳤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서 오히려 더 큰 실망을 받곤 했습니다. 허니까 제 마음에 아직도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하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아들에 대한 서러움의 마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학생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우리는 내버려둬야 합니다.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교육의 내외적 여건은 우리에게 이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교수가 겪어야 하는 증여와 교환 사이의 갈등이 비롯됩니다.

제기(祭器)와 제물(祭物)

배병삼 교수는 공자의 “그릇이 아니다, 불기(不器)를” 적극적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한낱 도구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소극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릇 속에 담기는 내용물 그 자체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자고 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군자는 전문가가 아닌 제너럴리스트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 선생님의 ‘상을 멀리 하라’는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이라는 이름의 그릇에 담아내야 하는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네 육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학생들을 무엇이 담긴 그릇으로 키워내야 할까요? 배병삼 교수의 얘기를 더 듣자면, “지난 백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던 근대적 인간형이 일인일기의 전문가였다면, 오늘날 이른바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두루 해박한 지식을 갖춘 제너럴리스트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이 대학에서 교육을 한다고 숭한 실수를 범한 지금, 그리고

예순을 넘긴 이 시기에서 저는 서울대학교 설립 60주년이 갖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쯤에서 저의 소망을 말씀드리는 것도 큰 무례는 아닐 줄 믿겠습니다.

우선 학생은 기능인이 되기보다 지식인이 되기를 꿈꿨으면 합니다. 제발 이 관악에서 생활하는 동안만이라도 수강 신청에 10년을 내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수는 교환보다 증여에 무게를 둔 교육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학과 사회가 교수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서울대학교에 인문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이 하나의 울타리로 묶였으면 합니다. 국가간 무한 경쟁이 우리의 목을 죄려 덩벼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사철과 시서화로 대변되는 우리네 지식인의 전통적 이상형에서 순수과학의 마음을 간직한 균형 잡힌 지식인을 키워낼 제도적 장치가 우리 대학에 마련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세 가지 소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